

더위를 식혀줄 다채로운 여름 특강

사하구 평생학습관 7월부터 12개 강좌 개최

사하구 평생학습관은 여름을 맞아 특강을 준비했다. 자격과정과 초등 대상 방학특강 등 12개 강좌를 개설한다. 학습형 일자리를 원하는 구민은 색채심리상담사 3급 자격과정과 캘리그래피 2급 자격과정에 도전해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보기를 권한다. 평생학습관에서 처음 열리는 카페 메뉴 따라잡기, 수제 마카롱 만들기 강좌가 있고, 상반기에 인기가 많았던 영화 문학과 카메라 관련 강좌도 계속 진행된다. 방학을 맞아 가족이 함께 만드는 가족공예와 초등 대상 목공미니어처 만들기 강좌도 있다.

신규학습자는 6월 12일부터, 기존학습자는 6월 17부터 접수하면 되고 선착순 모집이다. 신청은 사하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http://www.sahago.kr/edu>)를 이용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여 평생학습관에 방문하면 된다.

문의 : 사하구 평생학습관 220-4117~8

고명옥 평생학습 구민기자
arm5013s@naver.com

연번	강좌명	대상	교육기간	요일	시간
1	색채심리상담사 3급 자격과정	성인	7. 9.~8. 7. (10회 30시간)	화,수	10:00~13:00
2	캘리그래피 2급 자격과정	성인	7. 3.~8.21. (8회 24시간)	수	10:00~13:00
3	비타민 건강교실	성인	7. 2.~7.23. (4회 8시간)	화	10:00~12:00
4	북유럽으로 떠나는 영화 문학기행	성인	7. 8.~8.12. (6회 12시간)	월	19:00~21:00
5	DSLR 카메라로 배우는 풍경사진 촬영 노하우	성인	8.13.~8.27. (3회 6시간)	화	10:00~12:00
6	타로카드와 심리상담	성인	7. 4.~8.29. (8회 16시간)	목	10:00~12:00
7	부모-자녀 교감 역할놀이 손 인형 만들기	성인	7. 8.~7.15. (2회 4시간)	월	10:00~12:00
8	핸드드립으로 카페메뉴 따라잡기	성인	7. 5.~8. 9. (6회 12시간)	금	10:00~12:00
9	나만의 달콤 수제 마카롱 만들기	성인	7. 5.~7.19. (3회 9시간)	금	10:00~13:00
10	자외선 철벽방어! 여름 필수템 만들기	성인	7.12. (1회 2시간)	목	10:00~12:00
11	내가 만드는 아이스크림가게 연필꽃이 목공미니어처	초등 전학년	8.12.~8.19. (2회 4시간)	월	14:00~16:00
12	가족이 함께 만드는 가족공예	가족	8.13.~8.20. (2회 4시간)	화	14:00~16:00

배움 넘어 공동체를 느끼다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 원예교실 인기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의 여가활동과 자기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 중 원예교실 '꽃보다 그대'는 수강생의 반응이 좋아 몇 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다. 원예교실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4월 2일부터 시작해 10월 22일까지 진행된다. 매주 화요일 10시 30분 총 24회에 걸쳐 열린다. 그 동안 토끼어리(용기에 자라는 식물을 자르고 다듬어 모양을 만드는 작업) 만들기, 비누장미꽃 만들기, 수경식물 심기, 모종 심기 등의 수업이 진행되었다.

하반기에는 가을 텃밭을 가꾸고 직접 키운 새싹을 수확해 샌드위치도 만들어 볼 예정이다.

원예교실은 식물을 심거나 가꾸는 활동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다. 수업 중 공동 작업으로 복지관 텃밭을 가꾼 것은 무척 의미가 있었다. 장애인들이 가지, 고추, 방울토마토를 심고 가꾸었는데 돌아가며 관리하도록 해 책임감까지 기르도록 하였다. 미니수족관에는 물고기와 화초를 동시에 키우기도 했는데 서로 다른 생명체가 어우러져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을 배울 기회였다. 김미자(60세·다대동) 수강생은 "집에서 직접 식물을 키우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배우니 더 전문적으로 알 수 있어 좋아요."라며 흐뭇해했다.

6월 4일은 리스만들기 수업이 있었다. 리스틀에 비누꽃과 다른 악세서리를 붙여 예쁘게 장식하는 작업이다. 수업이 시작되자 박정연 강사는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큰 소리로 "와~ 여름이다. 기분 좋다. 행복하다."라는 특별한 인사를 하게 했다. 수업 전 마음열기로 교실은 웃음꽃이 피었고 분위기는 더욱 밝아졌다. 강사는 작품을

만들기 전 리스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어떻게 꾸밀 것인지, 다 만들면 어디에 걸어 둘 것인지 생각하게 하였다. 특히 글루건 같은 도구를 사용할 때 화상에 주의하라고 강조했다. 팔이 불편하거나 손이 불편한 수강생을 걱정하는 강사의 배려가 인상적이었다.

수강생들은 자기가 애써서 만든 작품을 머리에 얹어보고 사진도 찍어보며 뿌듯해했다. 배영희(58세·다대동) 수강생은 "혼자가 아닌 여럿이 같은 작품을 만드는 게 재미있어요. 수업하는 날이 기다려져요."라며 활짝 웃었다.

원예교실 꽃보다 그대는 7개월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 자칫 지루할 수 있지만 매번 다른 작품으로 수강생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강사의 배려와 수강생들의 열정이 원예교실을 지속시키고 풍성하게 만든다. 배움을 넘어 공동체를 느끼게 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

김정숙 평생학습구민기자
kjs5328@hanmail.net

기 획



주민 삶에 바짝 다가선 신평동 도서관

사하구에는 17개의 작은도서관이 있다. <사하배움 마당>은 올 한 해 동안 17개의 작은도서관을 가까운 지역끼리 묶어 6회에 걸쳐 소개한다.

신평 1동에는 동매누리 작은도서관이 있다. 2012년에 신평골목시장 인근 주택가에 노후 건물을 매입해 지상 1층 규모로 신축, 2018년에 2층을 증축하여 재개관하였다. 1층은 유아·아동도서와 열람실, 2층은 성인도서와 열람실, 강의실로 구성되어 있다.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생들이 월 2회 단체견학을 오게 되면서 도서관의 활용도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신평초등학교에 학년별 추천도서목록을 요청하고,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책은 청구기호를 첨가하여 목록을 비치해 놓았다. 이에 따라 학생과 부모들이 더욱 접근성 좋게 따로 분류해 놓은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양쪽으로 장애인용 핸드레일을 설치하였고,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 레일 중간 중간 있어서 배려가 돋보였다. 2층 강의실은 두터운 소음방지문으로 되어 있어 열람실에 최대한 방해되지 않도록 한 것도 눈에 띈다. 지난 5월에는 「제5회 독서감상화 그리기대회」가 열렸다. 책을 읽고 느낀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대회로, 도서관에서 직접 그림을 그리고 도서관 이용자들의 스



07 동매누리 작은도서관

티커 투표로 입상작을 선정했다. 유치부, 초등부의 참여 작품들로 꾸며진 1층이나, 2층 게시판에 붙어 있는 '동매누리 작은도서관 가족과 함께하는 감성여행'사진을 보니 주민들 삶에 바짝 붙어 있는 살아있는 도서관의 모습이 그려졌다.

신평2동에는 2011년에 개관한 꿈꾸는 작은도서관이 있다. 도시철도 신평역 9번 출구 맞은편에 사하구 노인복지회관 4층에 위치하여 찾기 쉽다. 현재 9천 8백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용자 수는 하루 평균 30명 정도이다.

건물의 1층은 새동네 경로당, 2층은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 3층은 사하문화 노인대학이 있다.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4층에 위치한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어르신들이 힘들 것 같았지만, 오히려



08 꿈꾸는 작은도서관

노인복지회관에 오는 김에 들 수 있어 좋아하신다고 한다. '한 계단 오를 때마다 건강수명 +4초'라는 계단 벽면의 글귀를 보니, 꿈꾸는 작은도서관은 건강수명과 문화적 수명을 함께 늘릴 수 있는 곳인 듯하다. 이용자 요구에 따라 돋보기도 비치한 점이 특이하다. 독서 논술교실, 어린이 동화구연, 독후감 경진대회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잘 운영되고 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작은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습관이 미래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문의 : 동매누리 작은도서관 900-4060

꿈꾸는 작은도서관 070-4116-5726

김미영 평생학습 구민기자
ivy1201@hanmail.net

더불어 사는 세상 위해 달리는 두바퀴 장애인 교육기관 '사하 두바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사하 두바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 교육과 생활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2016년 장애인 평생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다. 올해부터 사하구는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이곳에서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부산권 유일의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기관으로 연중 교육을 열고 있다.

사하 두바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자립생활 기술 전문 강의와 문화 체험 교육이 있다. 기초적인 한글 교육, 의사 소통, 재정 문제와 같은 이용자의 필요를 고려한 일대일 교육이다. 사하구 평생학습관에서 지원하는 토탈공예, 캘리그래피공예, 핸드드립 수업도 있다. 이 수업은 4월 16일부터 6월 10일까지 매주 화요일 진행되었다. '토탈공예'는 한여름의 열기를 식혀줄 부채 만들기 수업으로 수강생의 반응이 좋았다. 부채 만들기에 참여한 하현(54세·신평동) 씨는 "활동보조 선생님과 나들이를 해서 좋고, 다른 장애인을 많이 만나서 더 좋다"라고 말했다. 부채는 생활에 쓸 수 있고, 다른 장애인과 소통한 것은 덤으로 얻었다. 사하 두바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수업이 끝나갈 때 짬 수요조사해 앞으로 장애인에게 더 유익한 수업을 개설할 예정이다.

사하 두바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을 한다.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 건강교실을 연다. 장애인 건강교실은 사하구 보건소와 연계해서 건강관리 방법과 실내 운동법을 알려준다. 또 자립생활에 필요한 전문 지

식 습득과 취미활동을 지원하는 하기 위한 다양한 체험과 강의를 준비되어 있다. 봉사자와 함께 한글과 컴퓨터, 스마트폰의 통신기기 활용 교육도 한다. 매 월 이용과 미용 서비스를 하며, 고장난 휠체어를 고쳐주는 보조기기 수리와 지원사업도 하고 있다.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스스로 만든 모임으로 '두바퀴 자조모임'이 있다. 중증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스포츠 모임으로 매주 수요일에 있는 보치아 자조모임과 문화·여가생활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해 지역탐방, 영화 관람과 같은 문화 활동을 매월 1회 이상 진행하는 파이 자조모임이 있다. 친목 도모와 취미 생활을 위한 통기타 자조모임과 생활 체육 활동을 하는 생활 스포츠 자조모임도 활발하다.

사하 두바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특별한 강의도 연다. 양성된 장애인 강사가 초·중·고등학생과 직장인의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학교나 사업장으로 강의를 나간다. 교육 중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 휠체어, 시각장애를 직접 체험해 보는 장애 체험도 있다. 교육을 하고 나면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되기도 한다.

문의 : 사하 두바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220-1282

<http://www.twowheel.co.kr>

김미영 평생학습 구민기자
01hanthis@naver.com

찾아가는 평생학습 홍보체험관 리틀야구장에서 '장애인과 함께'



평생학습 홍보체험관이 4월 23일 을숙도 리틀야구장에서 열렸다. 이번 평생학습 홍보체험관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봉사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평생학습 동아리의 재능기부로 오리머핀, 컵케이크 만들기과 걱정인형만들기 체험이 있었다. 특히 걱정인형만들기는 자신의 걱정과 소원을 종이에 써서 인형으로 만드는 것인데 치유와 소망을 가져보는 체험으로 호응이 좋았다.

또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원예교실 '꽃보다 그대'에서 수강한 장애인들 작품으로 전시관을 꾸미고 하모니카 교실 '하모하모'에서 익힌 실력으로 장애인들이 직접 공연을 해서 박수를 받았다.

행사 진행 중 비가 와서 빨리 마무리 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손현아 평생학습 구민기자
ssnyen@hanmail.net

아름다운 그대

한글을 가르쳐 삶을 바꾼다

한글강사 황정옥 씨 이야기



사하구 평생학습관 한글교실에는 향학열에 불타는 어르신들이 가방을 메고 우르르 모여 든다. “아이 캔 두 I can do.”라고 인사하는 수강생에게 황정옥 (68세·다대동)강사도 “아이 캔 두 I can do”라며 반갑게 인사 한다. 수업을 마칠 때도 “아이 러브 올 I love all.”이라는 인사를 나눈다. 한글조차 몰랐던 수강생들이 황정옥 강사 덕분에 두 마디의 영어를 할 줄 알게 되었다. 어르신들에게 빛 같은 존재인 황정옥 씨는 교직에 40년 몸 담았다가 퇴직한 뒤 7년째 한글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사하구 평생학습관 한글교실 중 한음반 담임 선생님이다.

황정옥 강사는 2013년 사하구 다대 사회복지관에서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주말에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한글을 가르쳤고, 괴정동 형설학교에서도 한글을 가르친 적이 있다. 지난해부터 사하구 평생학습관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있다. 한글을 배우겠다는 자세로 찾아오는 수강생에게 한글을 가르쳐 삶의 변화를 이끌고 싶었다. 한글뿐만 아니라 여자라서 대우 받지 못하고 술한 세월을 고생한 수강



생에게 자서전 쓰기도 가르치고 있다. 자서전 쓰기는 올해로 네 번째인데 출판 기념식도 열어 수강생들에게 용기와 보람을 주었다.

황정옥 강사는 한글을 가르치면서도 문화를 익히게 하고 삶이 변화하도록 지도한다. 1월에는 수강생 3분의 2가 의료보험공단에 가서 의료 유언장을 작성하기도 했다. 수강생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으며 자녀에게 부담감을 덜어 주게 되어서 좋다고 말했다. 황정옥 강사는 세대 간

소통을 위해 신조어를 가르치기도 한다. “아아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뜨아는 뜨거운 아메리카노예요.”라고 알려주었다. “이것을 못 알아 들으면 고답다라고하는데 고답다는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답답하다는 신조어예요.”라고 설명하니 수강생들이 재미있다고 웃었다.

수강한 지 1년 5개월 되었다는 홍수임 (73세·서대신동) 씨는 “이름도 쓸 줄 몰랐는데 이제는 집주소도 쓸 줄 알고 은행가서 돈도 찾을 줄 알아요.”라

며 말했다. 정말순 (77세·김해) 씨는 “숫자를 몰라 엘리베이터 층수를 누를 수가 없어서 며느리 집에도 못갔고 지하철도 탈 줄 몰라 외출이 힘들었어요. 이제는 웬만한 곳은 찾아 다녀서 답답한 마음이 트였어요.”라고 말했다. 한글을 배우며 생활까지 바뀐 수강생들은 하나같이 황정옥 강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황정옥 강사는 오랜 교직생활을 마무리하고 편히 쉬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어르신들의 배움의 열정을 모르는 체하기가 어려웠다고 했다. 황정옥 강사는 수강생들에게 친밀하게 대하는 편인데 특히 언니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고등학교 때 친언니가 캐나다로 이민간 이후 보고 싶은 언니를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것이 마음에 사무쳐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수강생들에게 언니라고 부른다. 황정옥 강사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한글과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아낌없이 가르치고 싶다고 했다.

김필봉 평생학습구민기자
shijpbun@naver.com

워크숍을 다녀와서

평생학습의 새로운 방향을 생각하다

사하구는 2019년 사하구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을 열었다. 사하구 평생학습 관계자와 동아리연합 임원, 주민 강사들이 참여했다. 6월 7일 워크숍의 장소가 된 울산광역시 중구는 2007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으며 2019년 ‘다시 뛰는 울산 50+ 인생학교’를 주제로 국가교육평생진흥 특성화 사업 도시로 선정되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울산 중구의 높이 평가받는 이러한 특성과 사례를 통해 사하구도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평생학습 방향을 모색하고 평생학습 관계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특별히 요청하였다.

우리를 맞이한 중구 평생학습관의 김지영 관장은 ‘새로운 시대와 세대! 평생학습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방탄소년단의 노래 가사를 통해 “나를 찾고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보이고 사랑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지역이 보이고 마을, 사하구 그리고 나라가 보이게 된다.”는 말을 하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를 함축하게 하였다.

‘다시 뛰는 울산 50+ 인생학교’에 대한 강의에서는 ‘50+ 그들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다시 뛰는 청춘, 도전하는 청춘, 꿈을 꾸는 세대를 50+ 세대’라 말하며 ‘창조인으로서 50+ 세대’를 강조했다. 이제 인생은 1모작 시대가 아닌 다모작 시대이며 평생학습의 새로운 방향은 평생학습으로 나를 찾고, 만들고, 나누어 마을 속으로 스며드는 혁신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관은 ‘50+ 인생학교’를 개설하여 활동거리를 제공하

고 새로운 일자리를 연결해 활동과 봉사가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목받기 시작하는 이 세대의 사회적 존재감을 높이고 자기만의 영역을 넘어 함께하는 정신으로 개인의 성장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했다.

임미정 평생학습매니저는 “김지영 관장의 강의가 인상적이었다. 평생학습의 개념도 찾아가는 공간, 병원, 식당, 유동인구가 많은 곳, 소외된 곳에서 평생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열정적인 울산 중구 평생학습관의 좋은 기운을 담아 사하구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38세·하단2동) 동아리연합 임원은 “울산 중구 평생학습관에서 강의를 듣고 동아리실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다. 찾고, 만들고, 나누는 학습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비가 와서 태화강의 십리대숲 탐방이 취소되어 아름다운 경관을 보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다. 하지만 짧은 하루 일정 속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보고 변화를 시도하려는 노력을 느낄 수 있어 큰 자극이 되었다. 다시 한 번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신중년의 삶에 대한 평생학습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시간이 있다면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사하구의 평생학습도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하고 발전되기를 바란다.

빅강균 평생학습 구민기자
alberto1@hanmail.net



성인문해 날개 퍼다

검정고시 7명 배출

사하구 평생학습관은 2016년부터 성인문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 성인문해교실은 ‘쓰담학교’라는 이름으로 열고 있다.

삶을 쓰고 행복을 담은 문해교실이라는 뜻을 가진 쓰담학교는 3개의 한글문해반과 초등검정고시반이 있다.

특히 초등검정고시반은 지난해 11월 개설되어 올해 4월 초등검정고시에서 7명의 합격생을 배출하는 쾌거를 올렸다.

강사 은현범 (32세·화명동) 씨는 “늦은 나이에 도전하시는 어머님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끝없이 도전하시는 어머님들을 지켜보면서 오히려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사하구는 2008년부터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문해기관을 지원해왔다. 작년 연말 사하구에 있는 9개 성인문해교실 수강생들의 시화 64편을 모아 제2집 ‘늦게 보내는 편지’를 발간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배움엔 끝이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며 문해교육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수강생들의 도전을 응원한다.

김수현 평생학습 구민기자
16mmstory@hanmail.net



희망을 주는 공연을 꿈꾸며 '한마음 색소폰 동아리'를 만나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일요일 오후 다대포 해변에 울려 퍼지는 멋드러진 색소폰 소리에 관객들이 환호한다. 한마음 색소폰 동아리 김성봉(70세·구평동) 회장의 독주로 시작되는 무대 위로 단원들이 입장한다. 이어서 '스위트 케플라인'을 비롯해 '사랑을 위하여' '항구의 남자' 등 세 곡이 연주되자 관객들은 너나없이 박수와 찬사위로 화답한다. 한마음 색소폰 동아리는 '희망을 주는 공연'을 만들기 위해 라이브 공연을 매주 하고 있다.

2007년 8월 창단한 한마음 색소폰 동아리는 소외계층을 찾아가 문화 예술을 보급하고 소통하자는 취지로 연 80회 라이브 공연을 한다. 단원은 남성 12명 여성 8명으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바리톤 등 다양하다. 60대



를 주축으로 40대부터 80대까지 폭 넓은 연령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하구 하단동에 넓은 전용 연습실을 갖추고 현재 저명한 교수를 초빙하여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도전하고 있다.

한마음 색소폰 동아리는 관객과 함께 호흡하고 교감하는 무대를 목표로

공연한다. 최고의 무대를 만들기 위해 단원들은 매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습한다. 공연 전 리허설까지 포함하면 연습량이 엄청나다. 주 1~2회, 월 6회 정도의 공연을 소화하고 있다. 그동안의 공연은 신평역과 하단역의 레일로드 음악 살롱 공연, 을숙도 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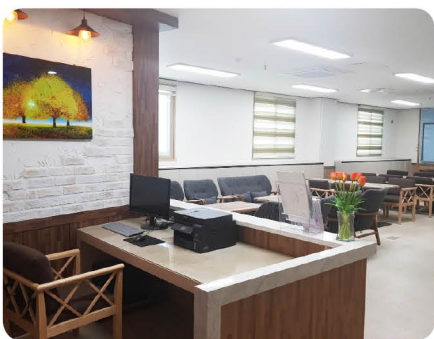
킹 라이브 공연, 요양 병원 위문 공연, 시민과 함께 하는 예술 마당 공연 등 셀 수 없을 정도다.

이영옥(64세·서대신동) 회원은 수많은 공연 중에서 경남 거창의 연꽃골 경로잔치가 기억난다고 했다. "삼계탕 60마리를 준비해 가서 고향 어르신들께 대접하고 회원들과 함께 공연한 그 시간이 색소폰을 배운 후 가장 보람된 경험이었습니다."라고 말한다. 김성봉(70세·구평동) 회장은 "앞으로 더욱 레벨업된 연주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정기 연주회, 국내외 컨테스트에 참가하고 여러 장르의 레퍼토리와 다양한 악기와 협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힌다. 이들의 바람이 현실이 되길 바란다.

김광숙 평생학습 구민기자
secan57@hanmail.net

동아리 활동 마음껏 하세요

사하구 첫 평생학습 동아리실 개관



사하구는 평생학습 동아리실을 마련하였다. 평생학습 동아리실은 과정 2동 까치고개로 실버힐링센터 지하 1층에 있다. 지난 5월 14일 실버힐링센터 개관에 맞추어 함께 문을 열었다.

다. 그동안 사하구는 평생학습 동아리들이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관과 동네방네 학습관을 이용해 장소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동아리실이 따로 없어서 자유롭게 이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문을 연 평생학습 동아리실은 방 2개와 비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로 이루어져 있다. 카페처럼 편안한 공간으로 꾸며진 일반 강의실과 방음벽이 설치된 강의실은 동아리 특성에 따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평생학습 동아리실은 사하구 평생학습관에 등록된 평생학습 동아리로서 최소 5명 이상이면 대관할 수 있다. 월 2회 1일 3시간 이용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대관은 사하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USB와 CD 출력이 가능한 이동용 스피커, 마이크, 빔 프로젝터 등 기자재 대여도 가능하다.

평생학습 동아리실 개관으로 회원 간의 소통과 화합뿐만 아니라 동아리의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버힐링센터 치매예방 이용자에게 재능기부도 손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의 : 사하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http://www.saha.go.kr/edu>)
220-4117~8

이미성 평생학습 구민기자
merrygold2971@hanmail.net

스트레스 날려 준 '킵타'

인기 높아 추가반 개설

"탁탁 탁탁탁~ 탁탁 쿵다쿵"

신나는 노래에 맞춰 1,2,3 구호를 하며 컵을 두드리는 연주로 강의실이 활기가 넘친다. 중간중간 책상에서 미끄러진 컵들을 주워서 박자를 맞추고 오른손, 왼손 둘이서 하나가 되어 연주하는 수강생들의 표정에 진지함도 느껴진다.

'흥겨운 리듬, 킵타'는 3월 13일부터 5월 29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2시간동안 열렸다. 수업진행 중에도 인기가 높아 추가 모집을 했다. 추가로 개설된 수업은 4월 10일부터 시작해 오는 26일 마무리한다.

킵타는 난타처럼 리듬감 있게 플라스틱 컵을 두드리며 여럿이 동작을 맞추는 것을 말한다. 이번 수업에 스포츠스태킹의 기본

동작을 배워 컵과 친해지며 리듬감을 익히는데 활용되었다. 스포츠스태킹은 12개의 컵을 쌓았다가 다시 내리며 기록을 측정하는 스포츠이다. 스택스컵으로 음악이나 리듬에 맞춰 자유자재로 연주하는 퍼포먼스를 익혀 집중력, 순발력, 협응력 발달에 도움을 준다.

5월 29일 마지막 수업은 2팀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그 동안 배운 기본 동작을 연습하고 시간을 재며 진행하였다. 큰컵 빙고게임은 중장년 수강생들에게 10대 학생 시절로 돌아간 듯한 즐거움과 에너지를 주었다.

수강생 김정연(51세·구평동) 씨는 플래시몹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수강했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수업에 활용하여 트로트음악에 맞춰 간단한 박자로 두드리니 어르신들의 표정이 밝아져 배운 보람을 느꼈다. 한 어르신은 두드리는 소리가 목탁소리처럼 들려 반야심경을 외우기도 했다.

수강생 황정희(60세·당리동) 씨는 킵타를 할수록 자신감과 승부욕이 생기고 손과 머리를 써서 뇌가 활성화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집에서 연습하는 모습을 본 아들이 관심을 가져 즐거움이 배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변찬혜 강사는 지난해 하반기 사하구 평생학습관의 스포츠스

태킹 지도사 양성과정을 듣고 자격증을 이수해 이번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강생이 저녁시간인데도 꾸준히 오는 모습을 보며 더욱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박자를 맞추고 안무를 구성하는 게 힘들었지만 열정적인 수강생 덕분에 수업을 잘 마무리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흥겨운 리듬 킵타 수강생은 지난 5월 알뜰장터에서 공연하기로 했으나 우천으로 취소되어 아쉬움이 컸다. 하반기에는 이들의 킵타 공연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민정 평생학습 구민기자
cute0114@hanmail.net

